

<룻 기>

1. 사사시대의 주요 장면

- 여호수아: 영토 획득과 분배 (나라로서 완전한 조건 구비)
- 사사기: 정치 시스템 구축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는 성숙한 국민들로 이루어진 이상국가)
- 룻기: 다윗 왕 등장 암시 (소망 없던 시기에 하나님 나라 새 카드 준비)
- 사무엘상, 하: 다윗 왕 등장

2. 룻기 탐구

- 사사시대 중 기드온 때일 것으로 추정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 베들레헴(빵집)에 빵이 없다! (영적, 육적으로 피폐한 시대 상황 상징, 나라의 융성은 말씀 순종 여부와 연관 있다. 순종할 때 풍요, 불순종할 때 핍절)
-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 → 남자들 다 죽음 (철저한 몰락, 이스라엘 상황 묘사)
-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는 소식 듣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감
-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해 때로 의외의 대상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신다. (모압여인 룻, 백부장의 믿음,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드보라, 예수 탄생 때 목자들)
- 낫선 땅 베들레헴으로 건너온 룻에게 임한 은혜 (무가치한 사람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무가치한 이스라엘(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
- 룻이 보아스와의 계대결혼을 통해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
- 룻이 다윗의 증조모이자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림 (암울한 사사시대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

<사무엘상, 하>

1. 구약 역사 묶음

- 모세 오경, 사사시대(수, 삿, 룻, 삼상, 삼하), 왕국시대, 포로시대

2. 사무엘서의 배경

- 명칭은 사무엘서이지만 다윗의 폴스토토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향하는 과도기 (사무엘과 다윗은 사사시대에 속했던 사람)
-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성 소유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행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다윗도 양치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 의지)

3. 사무엘서의 중요 스토리

① 사무엘의 생애

- 엘리 집안의 몰락과 사무엘의 등장 (눈이 어두운 엘리: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상징, 자식교육 부재, 홉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집안 파탄 → 엘리 급사, 홉니와 비느하스 전쟁 중 사망, 엘리 후손인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 주었다가 사울에 의해 살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 박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삼상 2:30)

- 미스바 성회(사사시대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
-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지휘할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함, ‘왕만 있으면 돼!’ 힘 있는 사람을 추종하는 세상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허용, 말이 안 통할 때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다.)

② 사울의 생애

-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으로서 손색없는 외모와 키, 배경(유력자 집안, 베냐민 지파)
- 암몬 자손을 물리친 사울왕(길르앗 야베스 구원, 이후 정식 왕으로 등극)
- 블레셋과의 전쟁(히타이트로부터 철기 문화 습득해서 이스라엘을 위협, 왕국시대 초기 많이 괴롭힘)
- 블레셋과 전투 중 사울의 죽음 (백성들이 원한 왕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준다.)

③ 다윗의 등장

- 기름부음 받은 다윗 (이새의 집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막내아들, 아웃사이더 사용하시는 주)
- 사울의 궁전에서 다윗
- 골리앗을 이긴 다윗(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객관적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우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신앙)
-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왕의 자리를 두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인정한 요나단의 믿음)
-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이때 기록한 글이 시편, 더욱 깊어진 믿음)
- 블레셋 망명 (블레셋 용병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처지, 다른 도시의 방백들의 반대로 무산, 하나님의 도우심)
- 사울의 죽음으로 도피 생활 끝 (약 10년간 도피 생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④ 다윗 왕의 초기

- 유다의 왕이 된 다윗 (7년 반 동안 유다지파의 왕, 헤브론 도읍)
- 이스보셋의 내란과 암살 (나머지 지파들이 사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 아브넬 실권)
- 이스라엘 전체의 왕(북방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으로 통일왕국 왕으로 등극, 언제든 분열 될 가능성)
- 예루살렘 점령과 블레셋 격퇴 (예루살렘 정복하고 다윗성, 그간 괴롭히던 블레셋 진압)
- 예루살렘으로 법궤 옮김
-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맺으심(“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6,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조로 이어진다는 사실 암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암시)

⑤ 다윗 왕의 중기

- 다윗의 연전연승 (가나안 정복기와 비교해서 3배 넓은 땅 차지)
- 므비보셋 이야기 (요나단의 아들인 장애를 가진 므비보셋을 데려다가 선대하여 약속 지킴)
- 밋세바 사건 (전쟁에서 연전연승, 나라가 부강해지던 차에 교만해진 다윗의 최대 실수, 고지론의 함정: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더 타락하기 쉽다)

- 솔로몬 출생 (다윗의 죄악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 압살롬의 반역 (장남 암논이 압살롬 여동생 다말을 겁탈, 다윗의 침묵, 압살롬이 직접 보복 살해하고 도망, 다윗의 용서로 3년 만에 귀향, 다윗의 침묵, 압살롬의 쿠데타 모의 성공, 다윗의 도망, 압살롬 편에 섰던 지락가 아히도벨 말 듣지 않고 후세 말 듣다가 쿠데타 실패, 다윗은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으나 요압이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 살해)
-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

⑥ 다윗의 말기

- 3년 기근과 사울 가문 처단 (3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 원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학살, 해결책: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가문 7사람 처단하겠다고 주장, 7사람 죽인 뒤 기근 해결 → 사울왕이 저지른 일을 왜 사울 가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나? 아마 당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일 때 가담하거나 동조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 힘없는 자에게 부린 횡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되갚으신다.)
- 인구 조사와 재앙 (인구 조사가 왜 문제인가?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 세금, 병력 규모 산출하려 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과 군대를 기반으로 한 전제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 힘을 숭상하는 세상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에 대한 벌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사망,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 원리를 좇아가면 안 된다.)

※ 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 했는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가? 아직 대적을 다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왕상5:3-4))

<열왕기서>

1. 주요 내용

- 왕상 22장 중 20장이 솔로몬, 여로보암(북이스라엘), 아합(북이스라엘)의 기록
- 아합왕이 죽는 것으로 열왕기상 종료
-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기록
- 열왕기하 25장 중 13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활동(열왕기 통틀어 75% 엘리야 엘리사 시대)
-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 역사 끝남
- 이후 히스기야 거쳐서 유다 말기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야기
- 히스기야왕부터 본격적으로 남유다 선지자 등장(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2. 솔로몬의 통치

-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
- 40년 통치기간 중 7년간 성전 건축, 13년간 왕궁 건축

- 이후 외교의 일환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숭배, 타락 (왜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겠는가?)

3. 왕국이 분열된 이유

- 르호보암 시절 나라가 쪼개졌으나 근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다.
- 핵심이유 1: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과중한 노역과 세금 부담에 시달림
- 핵심이유 2: 솔로몬의 우상숭배
- 분열 과정: 노역 감독관 여로보암의 등장 → 솔로몬의 견제 → 애굽으로 도망 → 애굽왕의 보호 속에 기회 엿봄 → 솔로몬 사망 이후 이스라엘로 복귀 → 르호보암의 실책 →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
- 다윗 때부터 분열 위험 내재(처음부터 통일왕국 왕 아니었다), 솔로몬 때 금이 갓고, 르호보암이 망치로 내리쳤다.

4. 여로보암의 죄

-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
- 여전히 종교적 정신적 중심지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열망
-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 금송아지를 고안하여 단과 벰엘에 설치 → 유사종교 창안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법궤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물체 개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 유사한 것은 우상숭배일 뿐)
-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킴 → 이때부터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여로보암의 죄” (우상숭배)
-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왕상 12:31-32)
- “시므리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왕상 16:18-19)
-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 3:1-3)

5.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 오므리 → 아합 → 아하시야 → 여호람, 이 중에 아합왕을 주로 다룸(왕상에서 7장 차지)
- 왜 아합의 비중이 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는지 보여주기 때문
- 이세벨: 페니키아 출신 열렬한 바알숭배자, 오므리가 페니키아와 동맹 맺고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함, 바알 선지자 대규모 양성하여 이스라엘에 바알신앙 전파, 이때 엘리야 등장
-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국교화 되어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나타난 인물, 3년6개월 가뭄(비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갈멜산에서 바알선지자들과 능력대결(누가 참 신인가?)
- 아달랴: 이세벨의 딸로 유다왕 여호람과 결혼하여 바알신앙을 유다에 전파하려 했던 인물, 아들인 아하시야가 전사하자 다윗 혈통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남은 요아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단행
- 비참하게 죽는 아합(과다출혈, 개들이 피를 핥음)과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대비: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준다.
- 엘리사: 오므리 왕조의 아하시야, 여호람 상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전개, 예후에게 기

름부어 오므리 왕조 무너뜨리게 한다.

6.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

- 예후 왕조는 아합의 역사를 심판하는 역할
- 예후 → 여호아하스 → 요아스 → 여로보암 2세(호,아,요) → 스가랴
- 예후: 여호람왕 살해,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 살해, 북이스라엘의 바알숭배자 처형, 오므리 왕조 심판으로 5대에 걸친 최장기 왕조로 인정받음, 그러나 자신은 율법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음
- 여로보암 2세: 최장기 41년간 통치, 북이스라엘 최대 전성기 구가(솔로몬 때 영토회복), 이 시대 사치와 향락과 죄악에 호세아, 아모스의 경고,

7. 북이스라엘의 멸망

- 예후 왕조 이후 급속히 쇠락, 마지막 5명 왕 중에 4명이 쿠데타, 반란을 거듭
- 호세아왕 때 앗수르 세력에 밀려 갈릴리, 요단 동편 빼앗김
- 호세아왕은 힘없는 애굽과 손잡고 앗수르에게 조공 거부
- 앗수르의 살만에셀 5세가 호세아를 포로로 잡고 사마리아 포위
- BC 721년에 사마리아 함락, 동시대에 남유다왕은 히스기야
- 앗수르의 식민정책: 다른 나라 포로들을 북이스라엘에 이민 보내어 인구혼합정책, 반란방지
- 각종 종교가 뒤섞여서 다신종교 사회가 됨, 인구혼합정책으로 태어난 후손들이 사마리아인

8. 남유다: 히스기야

- 우상숭배한 아하스와 대조적으로 종교개혁(성전 수리, 유월절 회복)
- 이사야, 미가 선지자 활약
-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목격,
- 앗수르 1차 침공: 성전과 왕궁 보물 내어줌 → 앗수르 물러감
- 앗수르 2차 침공: 임시 방편책으로는 안 통한다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 → 산헤립의 도발 →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군대 18만 5천명 사망 → 산헤립이 고국에서 살해

9. 남유다의 멸망

- 요시아왕의 종교개혁 (므낫세-아몬 시대의 영적 혼탁함, 성전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
- 유다왕국 후반기에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에게 사랑받은 왕
- 고대 근동지방 패권국가가 앗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감
- 애굽의 바로느고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을 치려고 갈그미스로 올라올 때 요시아가 출병하여 애굽군대를 막음 → 요시아의 전사 → 애굽과 바벨론 대결, 1차 갈그미스 전투: 무승부
- 요시아 사망 이후 남유다는 급속도로 쇠락
- 바로느고가 유다에 와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위 지키고 있어서 3개월만에 패위
- 애굽 말 잘 듣는 여호야קים을 왕으로 세움(애굽에 조공 바침)
- 2차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승리, 여호야קים이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기 시작, 바벨론이 유대 엘리트들 잡아감 → 이때 다니엘 잡혀감(BC 605)
- 여호야קים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고민, 바벨론 편에 섰다가 왕실에 친애굽파 득세로 애굽편으로 돌아섰다가 바벨론의 침공 →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감

- 백성들이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웠으나 바벨론에 의해 100일만에 폐위 당함
- 시드기야: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에 설 것을 주장했으나 친애굽파들의 말에 따라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나라가 망함(BC 586)
- 유다 말기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실 것이다!(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1. 연대와 기록 목적

- 남유다 멸망 직전부터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2. 느부갓네살이 꾸민 꿈

- 느부갓네살은 당대 제국주의자의 표상
-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가 하나의 신상으로 나타남
- 머리(금):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넓적다리(놋): 헬라, 종아리(철): 로마, 발(철+진흙): 여러 나라들 → 뜨인 돌이 무너뜨림(뜨인 돌: 예수님)
- 앞으로도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등장하겠지만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 남유다 멸망으로 실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에스겔>

1. 유다의 징계와 심판

-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준비하다가 바벨론의 2차 침공(BC 597) 때 포로로 잡혀감
-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곧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짐
-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심
- 에스겔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 예언 → 부질없는 기대 갖지 말라
- 예루살렘의 죄악과 멸망에 관한 환상
-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겔 10:18)

2.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점에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 조롱, 약탈하려 함
- 그러나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찬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등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언

3. 회복과 새로운 땅

-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들림
-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절망에 빠짐
-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계획 세우심
- 멸망 뒤에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전파

- 마른 뼈 환상
-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겔 37:5)

4. 성전 재건의 청사진

-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 하나님 나라는 지속된다는 상징으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
- “여호와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겔 43:4)

<에스라>

1. 포로기 이후 역사

- 페르시아(바사)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
- 1차 포로기(BC 605)에서 약 70년 만에 1차 귀환(BC 538)
- 1차 귀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
- 목표: 성전 재건, 그러나 외부세력 방해로 잦다 중단(BC 534)
- 학개, 스가랴 주도로 중단된 성전건축 완성(BC 516)
- 2차 귀환(BC 458): 지도자 에스라, 이방인과 혼합되어 가던 유대인들 개혁, 영적 부흥
- 3차 귀환(BC 445): 지도자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

2. 에스라는 누구인가?

- 성전 재건 후 6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예루살렘은 영적 침체와 이방인들과 결혼(부흥과 성령충만은 계속 필요하다! 타이어에 공기 주입하듯이...)
- 포로시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페르시아에서 평생 모세 율법을 연구, 순종한 사람
- 모세 율법을 연구하면서 유대 민족이 망한 이유와 나아갈 길을 발견함
- 에스라의 사명: 율법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 율법과 민족 정체성을 가르치리라 결심하고 2차 귀환(BC 458)
- 포로기 이후 유대 족보와 역사를 정리하여 가르침으로 유대인 정체성 확립(역대기 + 에스라: 두 성경은 맨 끝과 첫 시작이 똑같은, 이어지는 내용임을 암시)
- 성전 중심 공동체 → 율법 중심 공동체로 변화

3. 에스라가 행한 일

-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 운동 주도
-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아내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냄
- 섞이면 망한다는 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 깨달은 에스라는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
-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 귀환하여 성벽 재건, 두 사람이 공동 사역(성벽 재건 + 영적 재건)

<말라기>

1. 주요 내용

- 성전 재건 이후 80여 년 지난 시점, 성전 재건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임하리라 예상하고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 하나님의 통치에 회의
- 제사장들의 타락, 율법에 소홀
- 백성들의 무분별한 이혼, 이방인과 결혼, 십일조와 헌물 소홀
- 말라기 선지자의 질책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
-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라 예언
-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 4:5-6)
-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요한을 지칭,
- 세례요한의 외모는 엘리야와 흡사
-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왕하 1:8)
-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마 3:4)
-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마 11:13-14)
-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끝맺음하는데,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 엘리야가 등장한다.
-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막 1:3-4)